

“지역사회 통합·미래발전 원동력 만들 것” 4·3평화재단 제8대 고희범 이사장 취임

제주4·3평화재단은 지난 21일 오후 4·3평화교육센터에서 제6·7대 양조훈 이사장 이임 및 제8대 고희범 이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신임 고희범 이사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4·3특별법 개정을 이루는 데 기여한 정치권과 도·내외 기관·단체 등에 감사인사를 밝힌 뒤 “재단의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오랜 세월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홀린 눈물들과 순수한 열정을 기억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주어진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실크로드소프트 특별성금 전달

(주)실크로드소프트(대표 윤정일)는 지난 21일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를 방문해 소외된 이웃을 위한 희망나눔 특별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적십자사는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후원금을 사용할 예정이다.



한림수협-양돈농협 나눔 릴레이



한림수협(조합장 김시준)은 지난 20일 제주시 한림읍 금약리 노인회에 생선(전갱이)을, 제주양돈농협(조합장 고관진)은 제주시 한림읍 귀덕2리 노인회에 수육용 돼지고기를 각각 300만원 상당씩 전달하는 나눔 릴레이를 진행했다.

새마을지도자우도면협의회 난방비 기탁



제주시 우도면과 새마을지도자우도면협의회(회장 김영남)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20일 노인요양보호시설 우도살뜰요양원을 방문해 사랑의 난방비 100만원을 기탁했다.

김태엽 서귀포시장 재향군인회 공로회장



김태엽 서귀포시장은 지난 21일 서귀포시재향군인회 정기총회에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김진호) 향군 공로회장을 받았다. 김 시장은 안보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재향군인회 위상 정립 및 지역사회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라이언스 2017-2018 사총회 보청기 지원



국제라이언스협회 354-G지구 2017-2018 사총회(회장 송공주)는 최근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원장 강동우)와 함께 어르신 두 분을 선정해 제2차 보청기 지원 사업을 실시해 보청기 2대(48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월자포장 이창현 대표 이웃사랑 성금



(주)월자포장(대표 이창현)은 지난 21일 제주시 구좌읍 사무소에서 이웃사랑 성금 100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연)에 전달했다. 성금은 이창현 대표가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LX하우시스 대표 일동 사랑의 쌀 기탁



LX하우시스 임접대표 일동은 지난 21일 LX하우시스 매장에서 개업 기념 사랑의 쌀 1170kg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연)에 기탁했다. 이번 물품은 개업을 기념하며 받은 축하 화환으로 마련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에 김진영씨

김진영(58·사진)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하며 신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 영전했다. 신임 김 청장은 1989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한 뒤 곧장(주)금성사(현 LG전자) 해외영업부 사원으로 일하다 1997년 제4회 행정고등고시(출입국관리직)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출입국기획과와 주호지민총영사관 영사 등을 역임했다.

제주보호관찰소장에 유정호 감사팀장

법무부는 23일 유정호(54·4급·사진)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감사팀장을 제주보호관찰소장으로 임명하는 등 보호관찰직 인사를 발표했다. 신임 유 소장은 안동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대구보호관찰소 경주시소장·안동시소장,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감사팀장 등을 역임했다. 유 소장의 취임식은 24일 이뤄진다.

동정

시각예술분야 정책토론회 축사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2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시각예술분야 창작활동 활성화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예정.

시도의회운영위원장 회의 참석 <김용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2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9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할 예정.

제주어박물관 관련 현장 방문 <강철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위원장 25-26일 제주어박물관 설립 전락을 도모하기 위해 인어관련 선례 박물관, 한글 관련 기획 전시 등을 방문할 예정.

제주시연합청년회장 이취임식 <박원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3일 제주칼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제주시연합청년회 제14대, 15대 회장 단 및 감사 이취임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

제주도부교육감에 오순문 부경대 사무국장

신임 제주특별자치도부교육감에 서귀포시 출신 오순문(55·사진) 부경대 사무국장이 발령됐다. 제주도교육감은 교육부가 24일자로 오 사무국장을 제주도부교육감으로 발령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박중우 전 부교육감은 국립교원에 파견 발령됐다. 신임 오 부교육감은 서귀포시 출신으로 서귀포고와 한국교원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대학원 교육행정학 박사를 취득했다.

통계청 제주사무소장에 홍연권씨 임명

신임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장에 홍연권(55·사진) 통계청 농어업통계과장이 24일자로 임명됐다. 신임 홍 소장은 경북대학교를 졸업하고 1994년 통계청에서 7급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기획재정담당관실, 동북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장 등으로 근무했다. 현 정규순 소장은 동남지방통계청 제조사과장으로 발령됐다.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으로 보청기 제품비용(초기 적합관리비용 포함) 최대 99만 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을 구분하여 지급.
-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111만원+20만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사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중증·경증)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반
정책특가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본인부담금 0원 (전액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111,000원 (보청기 제품비용) + 20,000원 (후기 적합관리비용)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 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로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멍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

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이면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들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WIDEX®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 상담예약 064) 755.1005

원장 강동우
청각학 석사
청어능력사
언어재활사